대한상의(20층 챔버라운지)
'22.1.13(목) 14:00~15:30

2022년도 무역 전망 및 진흥대책

2022. 1. 13.

산업통상자원부

목 차

Ⅰ. 최근 수출입 동향 및 전망 ····· 1

1. 최근 수출입 동향 및 전망 ····· 1

2. 2022년 무역여건 및 대응방향 ····· 2

【참고】 업종별 '21년 수출 실적 및 '22년 전망 ····· 3

Ⅱ. 기본 추진방향 ····· 4

Ⅲ. 중점 지원대책 ····· 5

1. 무역 리스크 관리 ····· 5

[1] 공급망 이슈 대응 강화 ····· 5

[2] 수출입 물류애로 총력 해소 ····· 6

2. 수출 총력 지원 ····· 7

[1] 차세대 수출유망품목 지원 강화 ····· 7

[2] 수출저변 확대 ····· 8

[3] 무역금융 공급 확대 ····· 9

[4] 수출마케팅 집중 지원 ····· 10

3. 튼튼한 무역기반 확충 ····· 11

[1] 신시장 FTA 네트워크 확대 및 활용 강화 ····· 11

[2] 탄소중립·ESG 확산 지원 ····· 12

[3] 산업·무역의 디지털 전환(DX) 가속화 ····· 13

Ⅰ. 최근 수출입 동향 및 전망

1 최근 수출입 동향 및 전망

◈ 지난해 **최대 수출실적 달성**, 선진국 중 **가장 빠르게 코로나 이전 수준*** **회복**

* '20~'21년 GDP 성장률(%) : (OECD 평균) 0.2, **(韓) 1.5**, (美) 1.0, (濠) 0.6, (日) △0.4

◈ 올해는 逆기저효과로 **증가율은 다소 둔화**, **수출증가세는 지속**될 전망

□ **('21년 실적)** 수출액·무역액이 모두 **사상 최대실적**을 달성

○ 수출액은 **6,445억불**(**+25.8%**)로 무역통계 집계('56년) 이래 **최고 달성**

* '10년(+28.3%)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출증가율 기록, 3년 만에 플러스 전환

- 15대 품목과 9대 시장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*하며 **균형 있게 성장**

* 반도체(1,280억불), 석유화학(551억불), 바이오(162억불), 이차전지(87억불)는 年수출 최고치
* 핵심 시장인 中·亞·美·EU 수출 최고 달성, 중남미·중동 등 신흥시장도 모두 증가

○ 무역액은 사상 최대 **1조 2,596억불**을 기록하며 **세계 8위로 도약**

□ **('22년 전망)** **수출·입 모두 2%대 증가**하는 등 **무역의 성장 모멘텀은 지속**되겠으나, **逆기저효과**로 증가폭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

○ **(1분기) 수출 증가세**가 **지속**되는 가운데, 내수 회복·수출 호조에 따른 **중간재·자본재 수입**과 **겨울철 에너지 수입** 모두 **증가 전망**

* '21.12월 수입증가율(%) : (중간재) 43.6, (자본재) 9.5, (원유) 86.2, (석유제품) 177.5, (가스) 116.9
* 분기별 가스수입 물량(천톤, 5년 평균) : (1분기) **14,053**, (2분기) 10,876, (3분기) 10,680, (4분기) 12,532

○ **(연간)** 완만한 **경기회복, 반도체 호황** 등으로 '22년 수출은 2.0% 이상 증가하며 **'21년 최고 실적을 재차 경신할 것으로** 예상

- 주요 연구기관도 모두 **플러스 성장**(1.0~4.7%)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

【 주요 기관 2022년 수출입 전망(억불) 】

구 분	정부	한국은행	산업硏	무역硏	KDI	현대硏
수 출	**+2.0%**(6,560)	**+1.1%**(6,480)	**+1.3%**(6,381)	**+2.1%**(6,498)	**+4.7%**(6,714)	**+1.0%**(6,304)
수 입	**+2.5%**(6,280)	+1.3%(6,160)	+1.0%(6,055)	+1.6%(6,154)	+7.1%(6,025)	+0.8%(5,902)

2 '22년 무역여건 및 대응방향

◈ 세계 경제 회복*에 따른 **수출 성장세 지속이 예상**되나 **불확실성 상존**

* 경제성장률 전망(IMF) : +4.9%, 세계 교역량 전망 : ('20) △5.3% → ('21e) +10.8% → ('22e) +4.7%

◈ **공급망 불안, 물류애로, 탄소중립, 디지털 전환** 등 **대응과제 산재**

☞ **정부·지원기관·수출기업 등 민관 합동**으로 **선제적인 대응** 필요

□ (무역 여건) 공급망 불안, 수출입 물류 애로 등 불확실성 상존

○ (공급망) 美·中 **패권경쟁, 코로나 확산, 원자재 수급 불안** 등에 따른 **공급망 '새판짜기'**가 **본격화**되며 **예측하지 못한 교란** 발생

* (例) 코로나 확산에 따른 동남아 차량용 반도체 생산 중단 → 자동차 생산·수출 차질

○ (물류난) **물동량 증가세 둔화**와 **항만적체 완화**로 **불균형이 다소 해소**될 것으로 보이나, 당분간은 **물류비 상승세가 지속**될 전망

* 운임지수(SCFI) : ('20.1) 999 → ('20.12) 2,456 → ('21.6) 3,713 → **('22.1.7) 5,109**

○ (탄소중립) **2050 탄소중립**을 천명한 美·EU 등의 **친환경 정책 강화** → 우리 산업·무역에 대한 **친환경 전환 요구**가 증가될 우려

○ (디지털 전환) **非대면경제 확산**으로 산업·무역의 **디지털화 가속화**

□ (대응방향) 수출동력 강화와 함께 **안정적 성장을 위한** 무역기반 확충

❶ (리스크 관리) **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**하고, **수출입물류 애로 해소**

❷ (수출 총력지원) 소상공인 등 **수출저변 확대, 무역금융 공급 확대**(261.3조원), **수출마케팅 지원 강화**('22.上 60% 1,900억원 조기 집행) **등 집중**

❸ (무역기반 확충) RCEP 등 발효 계기 **신시장 FTA 활용 확대, 탄소중립·ESG, 디지털 전환** 등 **무역구조 혁신 지원을 강화**

별첨 업종별 '21년 수출 실적 및 '22년 전망

(단위 : 억 달러, 전년동기대비 %)

품 목	'21년 실적	'22년 전망	'22년 수출 전망 및 대외여건
총 계	**6,445 (+16.4)**		▸ 연간 수출·무역액 모두 최대실적 경신 전망
석유제품	382 (+57.9)		▸ 중동·아시아 중심의 설비 증설에 따른 생산물량 증가보다 수요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 * 국제유가(두바이유)는 '21년과 유사한 70불 초중반으로 전망
자동차	465 (+24.2)		▸ 코로나19 이후 이연된 수요 회복세에도, 車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 가능성 상존 ▸ 탄소배출 규제 강화 및 보조금 지급 등 영향으로 친환경차 시장 확대 전망은 긍정 요인
반도체	1,280 (+29.0)		▸ 우리기업의 초기 공정 증설, 가동률 개선과 함께 비메모리價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세 지속 전망 ▸ 클라우드 및 메타버스 플랫폼 확산을 대비한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메모리 수요 증가 전망
석유화학	551 (+54.8)		▸ 대규모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과 중국 경기침체 가능성에 따른 수요 약화로 증가세는 감소 예상
일반기계	531 (+10.8)		▸ 반도체·車 등 수요산업 설비 증가와 주요국의 인프라·설비투자 확대로 수출 증가세는 지속
디스플레이	214 (+18.9)		▸ LCD 감소에도 불구, 우리 기업의 여전한 OLED 시장지배력을 중심으로 증가세 이어갈 전망 * OLED 비중(%) : ('19) 50.0 → ('20) 60.6 → ('21) 66.5
섬 유	128 (+13.9)		▸ 글로벌 소비 심리 회복으로 의류 소재 수요 확대
바이오헬스	162 (+16.9)		▸ 그간 수출증가를 주도한 진단키트 성장 둔화에도, 바이오시밀러 시장 점유율은 증가로 상승세 지속 * 글로벌 의약품, 의료기기 시장 각각 6.4%, 4.6% 성장 전망(생명 硏, KHIDI)
이차전지	87 (+15.5)		▸ '21년 수출 최대 실적 기록에 이어 전기차, ESS 시장 성장 확대로 증가 추세 지속
차부품	228 (+22.2)		▸ 물류 대란에 따른 운임 상승, 車반도체 수급 불안 ,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소폭 감소세
컴퓨터	168 (+25.3)		▸ 글로벌 IT 기업의 데이터 센터 구축 확대로 SSD 수출이 당분간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만, 코로나 확산 안정세로 노트북·PC 등 수출은 감소 예상
무선통신기기	162 (+22.9)		▸ 소비심리 회복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출 증가가 기대되나, 부품부족 이슈 해소에 따른 中 업체 공세 등 불확실성이 상존
철 강	364 (+37.0)		▸ 전반적 수요는 견조하나, 주요 수출국의 철강규제 지속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할 우려
선 박	230 (+16.4)		▸ 그간 수주물량 생산 본격화에도 글로벌 발주 감소(△23% 전망) 등 영향으로 올해 수출은 소폭 감소할 가능성
가 전	87 (+24.0)		▸ 프리미엄 제품의 안정적인 수출실적 기대에도, 글로벌 수요감소와 전년 기저효과로 소폭 감소 전망

※ : 5% 이상 증가, : 0~5% 증가, : △5% 이내 감소 , : △5% 이상 감소

Ⅱ. 기본 추진방향

목 표	수출 7,000억 달러 조기 달성
방 향	‣ 수출 동력 지속을 위한 무역 리스크 신속 대응 ‣ 무역금융·수출마케팅을 통한 수출 총력 지원 ‣ 안정적 성장을 위한 튼튼한 무역기반 확충

3대 추진 과제	9대 세부 과제
무역 리스크 관리	① 공급망 이슈 대응 강화 ② 수출입 물류애로 총력 해소
수출 총력 지원	① 차세대 수출유망품목 지원 강화 ② 소상공인·스타트업 등 수출저변 확대 ③ 무역금융 공급 확대 ④ 수출마케팅 집중 지원
튼튼한 무역기반 확충	① 新시장 FTA 네트워크 확대 및 활용 강화 ② 탄소중립·ESG 확산 지원 ③ 산업·무역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

Ⅲ. 중점 지원대책

1 무역 리스크 관리

[1] 공급망 이슈 대응 강화

◈ **소부장수급대응지원센터 중심으로 수출지원기관, 업종별 협회 등과 협업해 핵심품목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**

1 **(핵심품목 관리)**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 국내경제 파급효과,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·관리

○ **(선정)** 업종별 협회, 연구기관, 주요 기업 등과 협의해 핵심품목 **선정**

○ **(관리)** 마그네슘 금속, 수산화나트륨 등 시급성이 높은 **20개 우선관리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안정화 방안*** **마련**

* 국내 생산기반 확충, 전략적 비축 확대, 수입선 다변화 지원, 수요관리 등

2 **(EWS 운영)** 해외공관(상무관), 수출지원기관, 업종별 협회 및 주요 수입기업과 협력해 위기징후 점검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

○ **(해외)** 상무관, 무역관, 무역협회, OKTA, 공공기관(수은, 무보 등), 현지 지상사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**「해외 진출기업 공급망 협의회」 운영**

○ **(국내)** 업종별 협회, 무역협회 중심으로 **주요 수입기업·전문무역상사와의 핫라인 구축**

3 **(기반 구축) 효율적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**을 위한 법·제도 정비

○ 수출입 제한, EWS 운영, 수입선 다변화 지원, 분석센터 설치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**제도적 지원근거 마련**

4 **(공급망 연대 파트너십)** 핵심광물·소재 자원부국과 '공급망 분야 연대·협력 파트너십 구축' 등 **공급망 안정을 위한 통상협력*** **강화**

* 사례) 한-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('21.12), 한-우즈벡 희소금속 생산기술 MOU('21.12)

[2] 수출입 물류애로 총력 해소

◈ **수출입물류가 안정화될 때까지 중소화주 전용(專用) 선복(화물선적공간)·물류비 지원 확대, 물류 인프라 확충 등 민관합동 총력 지원**

1 **(공급 확대)** ①임시선박 월 4척 이상* 투입('22.1월 6척), ②中企 대상 정기선박 선복량 배정을 매주 550 TEU('21) → 900 TEU**('22)로 확대

* '21.1분기 12척 → '22.1분기 14척 이상('22.1월 미주 5척, 동남아 1척 총 6척 투입)
** 항차당 배정 : (미주서안) **680TEU**, (미주동안) 50TEU, (유럽) 50TEU / (동남아) 120TEU

2 **(물류비·금융지원 확대)** 운임 급등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중소·중견 화주 대상 물류비 320억원*과 특별융자 1,500억원(수은) 지원('22上)

*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170억원, 온라인수출기업 운송 지원 50억원, 해외공동물류센터 100억원

3 **(대중소 운송협력 강화)** 중소화주 화물 해외운송 지원 연장·확대

* 포스코(~'22.12월)·현대글로비스(~'22.4월)·대한항공(~'22.6월), 삼성SDS 신규 참여('22.2월~)

4 **(물류 인프라 확충)** 현지물류, 항만시설, 물류정보플랫폼 등 확충

❶ **(현지물류)** 유럽의 관문인 **로테르담** 등 **현지 물류센터 신규 확보*** ('22년), **풀필먼트 서비스 확대**** 등 현지 물류 지원 강화

* 로테르담항('22.1월), 바르셀로나항('22.3월), 프로볼링고항('22.上)
* 현지 통관·보관·배송 제공 물류사 확대('21년 50억, 212개社 → '22년 100억, 약 230개社)

❷ **(항만인프라)** 부산신항 화물 보관장소 2,500TEU 확대('22.2월), 신규 터미널(2-4단계) 개장(5만톤급 3개 선석규모, '22.6월)을 통해 하역능력 상향(10%)

❸ **(물류정보)** '21.12월 개설된 **통합물류정보 플랫폼**을 **화물정보·운송 재고관리** 등의 **서비스와 연계해 고도화**('22.7월, 디지털무역기반구축 70억원)

5 **(물류 생태계)** 표준운송계약서 보급 확대, 소형화주의 장기계약 확산 지원*, 우수 선화주인증제 개편 등을 통해 장기운송계약 확대

* 섬유, 제지 등 업종별 협회가 회원사(중소화주)의 물량을 집하하고 장기운송계약을 체결, 경쟁력 있는 운임의 선복을 안정적으로 제공받는 시범사업 추진('22.上)

2 수출 총력 지원

[1] 차세대 수출유망품목 지원 강화

◈ 친환경차 등 10대 수출유망품목*의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

* 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, 친환경차, OLED, 친환경선박, 첨단기계·장비, 프리미엄 철강소재, 저탄소 화학소재, 고성능/친환경섬유, 이차전지 등 ('21.3월, 제4차확대무역전략회의)

1 **(R&D 지원 강화)** 유망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**제품 및 기술개발, 실증사업·상용화 지원** 등 **R&D 확대 ('21년 1조원 → '22년 1.2조원)**

< 기술개발·상용화 지원 (단위 : 억원) >

- **(친환경차)**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기 대응 R&D 신설 등 ('21) 1,393 → **('22) 1,859**
- **(반도체)** 차세대 전력반도체, PIM반도체, K센서 등 ('21) 1,097 → **('22) 1,532**
- **(조선)** 미래 친환경선박(무탄소 등), 중소·공공선박 설계 등 ('21) 663.7 → **('22) 720.8**
- **(바이오헬스)** 백신, 화이트바이오, 디지털 헬스케어 등 지원 ('21) 3,361 → **('22) 3,767**

2 **(수출지원) Big 3, 소비재 등 유망 신산업**의 해외진출 수요에 따라 **글로벌 파트너링*, 공급망 재편, 현지 유통망 진출 등 맞춤형 지원**

* 글로벌 기업과 매칭을 지원해 중소·중견기업의 GVC 진입 지원('21년 2,111개社 → '22년 2,200개社)

< 유망 신산업 수출 지원 >

- **(반도체)** 공급망 동향조사 실시, 협회·연구기관·기업이 참여하는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
- **(미래차·모빌리티)** 권역별 협력수요 발굴, 드론·항공기 등 모빌리티 전분야로 사업 확장
- **(바이오헬스)** K-방역 이미지를 활용한 의료기기 전시회 연계 수출상담, GP전문상담 등
- **(소비재)** 코트라 122개 무역관을 통해 지원사업 다변화(온·오프라인 연계 마케팅, 한류 연계 등)

3 **(제도개선)** 친환경차 등 **규제완화, 특례지원 등 제도개선을 통해 현장애로를 해소**하고 **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**

< 제도 개선 주요내용 >

- **(친환경차)** 공장증설 없이 외국인투자,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 (미래차특별법 제정)
- **(첨단기계)** 업종·공정별 장비·로봇 융합 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 촉진
- **(화장품)** 해외 인·허가, 마케팅, 수출절차 등 현업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과정 신설
- **(반도체)** 「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」 제정(1.12일 국회 본회의 통과) 및 '22下 시행

[2] 수출저변 확대

◈ 지원기관간 **협업**을 통해 **소상공인·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,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(scale-up) 지원, 지역 중소기업의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**

1 (신규 수출기업) 소상공인 및 내수기업 1,800개社 수출 성사 지원

○ (소상공인) 소상공인 수출 지원센터(코트라) **협업***을 통해 **수출형 소상공인 700개社 발굴, 300개社 수출 성사**('22년)

* 소상공인진흥공단, KOTRA, 중진공 등 수출지원기관 협업을 통해 수출 바우처, 맞춤형 컨설팅 및 정책자금 대출,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의 혜택 지원

○ (내수기업) 수출첫걸음 패키지* 지원 등으로 **1,500개社 수출기업화**

* 통번역(네이버 eXpert), 금융(기업, 신한), 물류(CJ대한통운, Fedex), 통관(관세청), 법률(법무부, 특허법인) 등 전문 분야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 지원

2 (스타트업) 해외 진출 지원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scale-up

○ (해외진출) 스타트업 거점 무역관(21개)을 통해 해외기술 실증 등 **현지 테스트베드, 레퍼런스 확보** 등 지원*('22년 1,500개社)

* 멘토링 교육, 크라우드펀딩 등 핫트렌드 웨비나, 무역관 전담직원 지정 등 성장단계별 지원

○ (매칭) 글로벌 기업의 **오픈 이노베이션 수요**와 **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수요 매칭** 지원('22년 발굴 200건 이상, 매칭 120건 이상)

*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: 글로벌 기업 수요 등록, 스타트업 신청, 역량 분석 및 매칭 지원

3 (지역 수출기업) 지방기업 맞춤형 해외 진출 지원*('22년 950개社),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**한 "지역특화 전시회" 신규 지원('22년 40억, 40개)

* 수출컨설팅(애로상담, 목표시장 도출 등), 수출상담회, 무역사절단, 바이어 매칭 등

** (예) (부·울·경) 기계부품, (대구·경북) 첨단소재, (광주·전라) 광융합, (대전·충청) 로봇 등

[3] 무역금융 공급 확대

◈ 물류·공급망 등 현안 대응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공급을 확대

□1 **(무역금융 확대)** 6개 기관이 **261.3조원 공급**(전년대비 **+5.4조원**)

○ **중소·중견기업**('21년 60 → '22년 67조원, 무보), **신산업 지원** 중심으로 **확대**

< '22년 기관별 공급 계획 (단위: 조원) **>**

구분	무보	수은	신보	기보	중진공	무역협회	합계
'21	167.0	72.1	13.0	3.2	0.5	0.079	255.9
'22	175.0	69.0	13.5	3.3	0.4	0.07	261.3

□2 **(현안 대응형 지원)** 물류, 공급망 등에 대한 **금융지원 적기 도입**

❶ **(물류)**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**무역보험 지원 확대**

* 단기수출보험 만기 연장 및 연장보험료 면제 추진('22.上)

❷ **(공급망) 경제안보 핵심품목**으로 지정된 **원자재 수급 지원***('22上), **공급망 재편**에 따른 중소기업의 **현지 대응력 제고** 지원**('22.下)

* 수입보험 지원대상에 경제안보핵심품목 추가, ** 해외현지법인의 운전자금 보증 신설

□3 **(업종별 맞춤 지원)** **국가첨단전략산업, 빅3 등 新산업** 대상 **맞춤 지원**

❶ **(국가첨단전략산업) 특별법 연계 특별지원 프로그램*** 신설('22.下)

* (대상) 첨단전략산업 기술 보유기업, (지원) 보험·보증료 할인 및 보험·보증한도 우대

❷ **(新산업)** 장기자금이 필요한 **新산업·소부장 대상 中期 보증상품 신설***('22下)

* (기존) 1년 수출신용보증 → (개선) 신산업, 소부장기업 등 대상 **3년 만기 보증상품 신설**

- **'新산업 수출 특별지원***'을 연장하여('22上) **수출보험 우대**

* (대상) 12대 신산업(스마트선박, IoT가전, 로봇, 바이오헬스, 프리미엄 소비재 등) 및 5G 네트워크 산업
* (내용) 보험료 20% 할인, 신산업 품목 수출시 보험한도 최대 1.5배~2배

[4] 수출마케팅 집중 지원

◈ **상반기 중 수출마케팅 예산 60% 투입, 화상상담·O2O 전시회 확산,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현지애로 해소 및 지재권 지원 확대**

1 (조기 집행) 금년 상반기 중 수출마케팅 예산 60%(약 1,900억원) 투입

❶ (수출바우처*) 바우처 조기 집행('22.6.30)을 통해 상반기 집중 지원

* '22년 총 1,553억원, 약 4,870개사 지원(산업부: 478억원, 900개사/ 중기부: 1,075억원, 3,970개사)

❷ (해외전시회) 대규모 전시회(CES, MWC 등) 중심으로 상반기 85회 지원

* ('21년) 453억원, 약 3,500개사 → ('22년) 457억원(산업부 316/중기부 141), 약 3,900개사

2 (온라인 마케팅) 온라인·비대면 중심의 수출마케팅 집중 지원

❶ (화상상담) 온라인, 온-오프라인 등 수출상담 지원 확대(6.5만건 이상)

❷ (온라인 전시관) 16개 업종별 온라인 상설전시관*과 국내외 오프라인 무역전시회를 연계하는 O2O 전시회를 2배로 확대**

* 섬유·바이오헬스·전자·로봇·기계·조선·패키징·건축기자재·전기·서비스 등 16종
** ('21) 전기, 기계, 로봇 등 10회 → ('22) 화학, 바이오헬스, 신재생에너지 등 확산(20회)

❸ (현지유통망) 해외 온라인 유통망* 입점 지원으로 온라인 수출 확대

* 아마존, 쇼피(동남아), 큐텐(일본), 플립카트(인도) 등 '22년 4,000개社 입점 지원

3 (애로해소) 중소·중견 수출기업 현지마케팅 애로 해소

❶ (해외 지사화) 무역관에서 수출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연중 수출 및 해외 진출 지원*('22년 302억원, 약 4,000개社)

* (일반) 시장조사, 바이어발굴, 전시회 지원 등, (긴급) 출입국 제한 시 거래선 관리 등 긴급 대행

❷ (시장조사·마케팅대행) 코로나19로 장기간 해외출장이 어려운 기업의 현지 시장조사, 바이어 발굴, 마케팅 애로해소* 지원('22년 약 5,000건)

* (예시) 시장조사, 바이어 실태조사·심층면담, 샘플 반응도 조사, 전시회 대리참관 등

❸ (지재권) 지재권·해외인증 특화 상담(무협, 600개社), 지재권 침해 실질 대응 및 상표·디자인·특허출원 지원(코트라 IP-DESK) 등 추진

3 튼튼한 무역기반 확충

[1] 新시장 FTA 네트워크 확대 및 활용 강화

◈ 중동·아프리카 등과 FTA 추진, RCEP 발효 계기 역내 공급망 활용 강화

1 (신시장 확대) 신시장 FTA 네트워크 확대 및 다변화 추진

❶ (신남방) '22년초 **한-인니 CEPA, RCEP의 발효·이행, 필리핀·캄보디아**와의 서명·비준 등 **발효 가속화**로 **신남방 FTA 네트워크 완성**

❷ (신북방/중남미/중동/아프리카) **우즈벡·러시아/멕시코·태평양동맹·메르코수르/UAE·GCC/이집트 등과 FTA 추진**, **거점별 교두보 확보**

❸ (메가 FTA)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, 대외협의 결과, 국내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, **보다 높은 수준의 CPTPP*** **가입 적극 검토**

* 日·호·뉴 등 아태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·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

2 (활용 강화) RCEP 발효('22.2월) 계기, 역내 공급망* 활용 강화 지원

* RCEP 무역규모(5.4조불), GDP(26.3조불), 인구(22.6억명) 측면에서 전세계의 약 30% 차지(IMF, '19년)

❶ (역내 GVC 활성화) **산업부-관세청 합동설명회*('22.2월) 개최 등 원산지 누적, 해외통관 원스톱 지원**을 통해 **역내 공급망 활용 강화**

* FTA종합센터(무협)-역내 FTA해외활용센터(7개국 12개소)-관세청(해외통관지원팀 등) 등 유관기관 공동주최로 베트남 등 RCEP 현지국가 및 국내 이원 생중계 추진

❷ (홍보·컨설팅 강화) 기업들이 RCEP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적용이 쉽도록 **정보제공·홍보*** 및 **기업방문 컨설팅 지원**** **강화**

* '22.1~2월중 지역별 'RCEP 활용전략 설명회' 개최 (FTA종합센터 및 16개 시·도별 18개 지역센터 주관, 지역 세관·지방 중기청 등 지역내 유관기관 협업)

**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FTA 활용 'OK FTA 컨설팅' 사업 조기 착수(2월~, '22년 20.2억원)

※ RCEP, 한류 등을 활용한 「동남아시장 무역·투자 확대 전략*」 마련('22.上)

*** (제조업) 기술협력, 스타트업, 투자진출 등 아세안 역내 공급망 진입 지원**
(소비재) 한류(한류박람회 등), 할랄, K-방역 등을 활용한 소비재 수출 확대
(디지털·탄소중립) 전자상거래 수출 강화, 온실가스 해외감축 프로젝트 가동 등

[2] 탄소중립 · ESG 확산 지원

◈ **친환경산업 대상 기업의 글로벌 친환경시장 진출지원,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과정부터 적극 참여하여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**

1 (탄소중립) 저탄소 혁신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친환경시장 선점

❶ **(혁신지원) 민간 투자부담을 최소화**하면서 저탄소 혁신을 앞당기기 위해 **기술개발, 세제·금융·제도 등을 집중 지원***

* (R&D) 탄소중립 R&D 2배 확대('21년 2,130억원 → '22년 4,082억원), 6.7조원 규모 예타 추진
(세제) 탄소多배출 업종의 주요 탄소저감 기술 등을 신성장·원천기술에 포함
(금융) 탄소중립 사업재편 中企 투융자지원('22년 1조, 산은), 탄소중립 선도프로젝트 특별융자('22년 1,500억)

❷ **(수출지원)** 신에너지·미래차 등 **친환경 산업 기자재·프로젝트 기업** 대상, **수출바우처**를 통한 **해외진출 지원***('22년 50억원, 70개社 목표)

* 참가업체별 해외시장 진출 로드맵 수립, 로드쇼·세일즈 출장 지원, 인증 등 지원

❸ **(시장진출) 온실가스 해외감축**을 **전략적**으로 **추진***하여 국내기업의 **글로벌 친환경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**

* ①3대 전략시장별(신남방·북방·중남미) 유망 해외감축 프로젝트(태양광, 풍력 등) 발굴·지원,
②FTA를 활용한 양자협력 확대(예: 한-필리핀 FTA 旣반영, 한-UAE FTA 추진시 반영)

❹ **(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)** 규제 설계과정*에서 우리 산업에의 **부정적 영향 최소화, 국내 탄소중립 제도가 반영**되도록 **양자·다자협의** 강화**

*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제정안 발표('21.7월) → 입법 → '26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
** (양자) EU 등 관련국 동향 모니터링·협의, (다자) 관련조치 WTO규범 합치성 논의

2 (ESG) ESG 경영 확산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

❶ **(가이드라인)** K-ESG 가이드라인('21.12월)을 **업종·규모별로 구체화***, ESG 경영 **자가진단 툴 활용도를 제고**('22년 5만개社 시범적용)

* (기존) 공통항목 중심 → (개선) 업종별·규모별 가이드라인 제시('22~'23)

❷ **(평가·지원)** '21.12월 구성된 **수출기업 ESG 지원협의회**를 통해 희망기업 ESG를 **시범평가**('22년 200개社)하고 **우수기업 인센티브*** **제공**

* 무보(보험료 할인, 보증한도 상향), 수은, 중진공 등 정책금융, 코트라 사업 선정시 우대 등

[3] 산업 · 무역의 디지털 전환(DX) 가속화

◈ 산업·무역의 DX 가속화 지원, 新기술 기반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

1 (산업 DX) 디지털 혁신을 위한 선도사례를 발굴하고 업종별 맞춤 지원

❶ **(선도사례 지원)** '선도 밸류체인 육성사업'('22년 98억원), 'DX한걸음 프로젝트'('22년 신규, 48억원) 등 **100대 선도사례 확산** 지원

❷ **(업종별 지원) R&D, 표준, 현장실증** 등 **업종별 맞춤형 DX** 촉진

* (조선) 전주기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: 공정 자동화(예타 추진), 자율운항 성능실증센터 완공('22.6)
(가전) 스마트홈 구현을 위한 IoT 가전 핵심부품 개발('22~), AI가전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('22~24년 190억)

2 (무역 DX) 디지털 무역지원 시스템 고도화로 기업 편의성* 제고

* B2B 구매과정에서 바이어의 디지털 선호(McKinsey) : 코로나 이전 48% → 이후 66%

❶ **(디지털 지원)** 플랫폼(buyKOREA) - 콘텐츠제작* - 화상상담 **일괄 지원**

* 지역별 디지털 수출지원 거점(K-스튜디오) 확대 : ('21년) 6개 → ('22년) 9개

❷ **(수출정보 지능화)** 무역투자 데이터 **AI 분석** 및 **맞춤형 정보제공** 시스템*('21.11월~)을 활용, 수출기업의 **바이어 매칭 정확도 향상**

* 정보량 대폭 확대(해외기업 정보 40만개 → 620만개)하고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고도화

❸ **(창구 단일화)** 수출정보-상담-사업신청을 **통합 제공하는 옴니채널** (무역투자24) 구축('22.4월) → **범정부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화** 추진('23년)

❹ **(모바일 무역금융) 모바일 보험·보증 상품 확대*** 및 **'다이렉트 보험상품' 한도 상향** **등 **실시간·모바일 무역금융 서비스 강화**

* 21년단기보험, 선적전 보증, 유동화 보증, 보증보험, 환변동 보험 + 22년**수입보험**
** 보험한도($10만→$40만), 보상비율(90%→100%), 보증한도(5천만원→1억원) 등

3 (디지털 무역인력)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연간 약 900명 양성

○ **무역아카데미, 생산성 본부** 등 전문교육 기관과 협업하여 디지털 전환, 메타버스 등 **新기술 기반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과정*** **운영**

* 「지역전문가 양성사업(25.2억원, 700여명)」 : 전국 20개 대학, 중소중견기업 참여
「지역대학생 디지털 마케터즈 육성(161명)」 : 전국 6개 대학에 교육 과정 운영